

“전북 미래 위해 담대하게 도전을”

“국내 체육시설, 안전 점검 표준안 無”

김관영 도지사, 용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노력해준 직원에 감사 전례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선제준비·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주문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서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의연하게 도전해 나갈 것”

14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지정예고된 임진왜란 ‘용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해 노력해준 문화유산과 직원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100일동안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로 4연속 훈령을 기록하고, 지난 12일 ‘용치전적지’ 사적 지정의 성과를 거뒀다. 깎발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 유치 노력 등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지”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9일 발생한 무주 일가족 참사와 관련해 생활·주거안전 사각지대의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강화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이고 정밀한 점검과 대비가 필수적이다”며, 시군·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가스누출 등 안전점

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일산화탄소 난방 가열점 경보기 보급 국가사업화 추진’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시도지사회의 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겨울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점검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실국장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1 공무원 매칭 기업 애로해소 지원 시스템’도 신속하게 가동할 준비를 할 것”

등을 비롯하여 헬스클럽, 풋살장, 무도장 등 민간체육시설은 사업자가 기준없이 점검과 개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생활체육 추구인들이 뛰는 인조잔디가 뜰어지고 배드민턴 구장의 미끄러운 바닥, 짝짝 갈라진 운동장 트랙에 선수들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한 2022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운영현황’을 살펴본 바에는 시설물과 소방 등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질적인 체육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선수 활동 공간에 대한 성능안전점검과 보수는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활체육에서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64%에 달하고 전문체육선수는 평균적으로 연간 1회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체육 시설 안전 점검에 대한 표준안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도의회 회의는 민선 8기 첫 도정질문이 예정된 만큼, 도정 핵심정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논의하고 소통하고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지하게 이어진 국회 기재위 국감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시의회-용인특례시의회 상호교류 활성화·지역발전 협력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14일 전주시의회와 한옥마을, 청소년거리의 벤치마킹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용인특례시 바로알기’와 ‘도시활력소’ 소속 의원 18명은 이날 전주시의회를 찾아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종 시설을 둘러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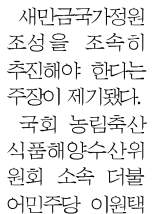
방문단 일행은 전주시의회에 이어 한옥마을과 고사동 청소년거리를 찾아 용인특례시에 접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요소를 두루 살폈다.

양 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용인특례시의회 방문은 상호간 효과적 의회 운영과 양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국가정원 조속히 추진해야”

민주 이원택 의원 “국제도시 걸맞는 그린 인프라 조성 필요”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22년 예산안에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기본구상비 반영을 추진했으나, 최종단계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새만금 지역의 국가정원 조성이 필수”라고 밝히며, “새만금 국제도시에 걸맞는 그린 인프라 조성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환경생태도시의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해야”

박정희 의의원, 촉구 결의안 발의... “尹, 구조적 성차별 문제 정치적 도구로 활용”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B)은 제395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첫 번째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정부조직개편 골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설치, 재외동포청 신설 등으로 바로 다음날인 7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이 정부안과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선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정치적 선거운략으로 활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우리 사회 여성문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이미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적하고 있다면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2년 성역차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46개 중 99위, 유엔개발기구 성개발지수 2019년 57위, OECD 양성평등 사회제도지수 2019년 51위, 유리천장 지수는 29개 국가 중 29위로 10년째 최하위”라면서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이 만연한 상황에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조직,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여성정책 생태계는 와해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정희 의원은 정부를 향해 “여성의 경제·사회·정치 영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양육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구조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조직확장과 예산 강화”를 촉구하며 “여가부 폐지를 끝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용성 119지역대, 안전센터 승격을”

양해석 도의원

남원의 소방출동률29%를 담당하고 있는 용성 119지역센터를 안전센터로 승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 2)은 지난 12일 도정 서면질문을 통해 남원 용성 119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의의 58%가 근무하는 119안전센터는 도내에 54개소가 있다. 이러한 안전센터는 현장 중심의 출동과 대응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상황으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권의 거점도시이자 유일한 시 지역인 남원시에는 안전센터는 3개소로 군지역인 완주군, 고창군보다 적어 안전센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며, 그 대안이 바로 남원 용성 119지역대의 안전센터 승격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남원 용성 119지역대의 최근 3년간 출동현황은 2019년 2,583건, 2020년 2,439건, 2021년 2,648건으로 남원 전체 출동 건수의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원에 소재한 식당, 인형 금지 119안전센터보다 출동 건수가 더 많다. 도내에 위치한 전체 119안전센터와 비교했을 때 2019년, 2020년에는 30개소, 2021년에는 28개소보다 출동을 더 많이 했다.

또한 용성 119지역대가 관할하는 남원 도심권에는 재래시장인 공설시장, 용남시장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 공동주택이 인접하고 있어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용성 119지역대의 소방차량은 화재진압차, 구급차 2대뿐이며 상시 근무인원은 6명에 불과해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초기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축! 전주매일 창간

www.plove.or.kr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f**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직이나 임대료 인건 증가수익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신청자격: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